

또 다른 삶의 시작

·글_ 김준식 님



아주 평범한 날 속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술을 마시고... 그렇게 일반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굳이 남들과 틀린 점을 하나 꼽으라면, 헌혈을 좋아하는 편이라 헌혈을 하러 갔다가, 흔히 말하는 골수기증 신청을 했었다는 것? 그것도 아주 예전에요.

어느 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일치하는 백혈병 환자가 있다고, 기증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자식 생각에 혹시나 하는 불운을 믿고 계셨던 부모님과, 뜻 깊게 살지 못했던 제 삶에 찾아온 선한 일. 꼭 기증을 하고 싶었던 저, 부모님은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썽들을 들으셨는지.. 한참을 서로에게 기분 상하는 말을 건네며.. 부모님이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 또한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달 후...

유전자검사를 마친 후 부모님을 어렵게 설득하고 입원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아픈 만큼 한번 크게 성숙 해지고 싶었는데 어여쁜 유선옥, 유효순, 김경민 코디네이터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아프지 않게 기증과정이 금방 끝나더군요. 쑥스러워 말은 못했지만 많이 감사했습니다.

입원날짜와 겹쳐서 졸업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생활을 정리할 만큼 성숙해진 진심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3일 째 되는 날 퇴원 하면서 몇 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혜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약하면 다른 그분에게도 고통이니까. 꼭 건강히 지내자.

지금의 나보다 아파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니까 힘들다는 말 하지 말자.

또 하나... 나도 착한 일이란 걸 할 수 있구나...

이제 진짜 착하게 살자.

조혈모세포기증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기증에 참여한 진짜 이유는
내 선택에 다른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정에 매달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 받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작은 방법.
조혈모세포 기증에 참여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꼭, 도와 드리겠습니다.

·글_ 맹영선 님



지난 2월,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서 내 골수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어서 기증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1995년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조혈모세포기증희망을 등록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좋은 일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담당 코디네이터를 울산공항에서 만나 자세

한 설명을 듣고 제 혈액 샘플을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곳 경주에서 대구까지 오가며 수술을 하고, 2~3일 병원에 입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내 옆자리를 지켜주겠다는 친구와 동생이 있어 이제는 걱정을 조금 덜었습니다. 또 나로 인해 다른 한 분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몇 해 전 백혈병으로 친지 두 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조혈모세포가 일치하는 기증자만 있었다라면 아직도 오순도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텐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 옵니다.

여전히 많은 골수기증 신청자들이 막상 기증의사를 물으면 포기한다고 합니다. 가족의 반대도 심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좋은 일 한다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가족이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골수기증 수술 날짜를 코앞에 둔 지금 나는 무척 흥분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40대의 환자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세요. 곧 그리고 꼭, 도와 드리겠습니다.